

# 전국동계체전 오늘 개막... 광주·전남 선전 기대

서울·경기·강원·경북 등서  
20일까지 나흘간 열전 돌입  
17개 시·도 4210명 참가  
전남 8위·광주 14위 목표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제전인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7일 개막해 열전에 돌입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3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평소 갖고 닦은 기량을 펼친다.

이번 동계체전은 오는 20일까지 나흘간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울산 등지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번 전국동계체전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개최하는 국내 종합대회로, 선수단 경기력을 점검하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게 목표다.

이번 대회에는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등 8개 종목에 선수 2726명과 임원 1484명 등 총 4210명의 17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한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금 6개와 은 1개를 획득한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스피드스케이팅(1월 27-29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 바이애슬론(1월 28-31일, 대학·일반부) 등 2개 종목은 사전 경기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컬링은 11일 사전 경기를 시작해 20일까지 본 경기를 진행한다.

전남은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 등 2개 종목을 제외한 6개 종목에 224명(선수 123·임원 101명)이 참가한다. 지난해 대회 종합 7위(금 16·은 9·동 5개)를 기록했던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금 6·은 5·동 6개 획득과 종합 8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단은 지난달 28-

31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남자일반부 계주(티모페이 랍신·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김철영)와 혼성계주(함해영·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알렉산더 랍신), 남자 스프린트 10km(랍신), 여자 스프린트 7.5km(에카테리나), 남자 집단출발 15km(랍신), 여자 집단출발 12.5km(에카테리나)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일반부 계주(에카테리나·함해영·염혜진)에선 은메달을 따냈다.

지난 103회 대회 스키 알파인 초등부 4

관왕을 달성한 강다현(여수삼일중 1년)은 15일 스키 알파인 대회전 여자 16세 이하부(중등부)에서 1분39초61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17일부터 치러지는 본 경기인 스키(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하는 전다경(화순제일중 2년)은 클래식·프리·복합·스프린트 등 4개 종목에서 모두 은메달이 기대된다.

산악 종목의 이영건(전남산악협회)은 동메달 2개(스피드·리드), 화순초 스키(크로스컨트리)팀은 동 3개(남·여 계주, 개인)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3회 대회에서 초등부 5관왕을 차지한 조다은(화순제일중 1년)이 올해는 중등부로 참가해 선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애슬론 사전경기를 마친 김철영·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함해영·염혜진 등은 스키(크로스컨트리)에도 참가해 메달 추가에 도전한다.

광주는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 등 2개 종목을 제외한 6개 종목에 116명(선수 59·임원 57명)이 출전해 지난해와 동일한 종합 1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스노보드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총 75.5점으로 종합 14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 15일 사전경기로 진행된 빙상 피겨 남자 13세 이하부 싱글 D조 종합에 출전한 문승현(주월초 4년)이 32.07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운우(성덕초 5년)는 지난달 28일 빙상 스피드 남자 13세 이하부 2000m에서 2분57초9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는 본 경기인 스키 스노보드 김예나(34·광주스키협회)가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동계체전 개최식과 폐회식은 5개 시·도로 분산 개최하면서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대한체육회는 대회 종료 후 별도로 종합시상을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완화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동계체육대회로 지난 대회와는 달리 유관중으로 진행한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 전갑수 회장 “화합·소통·통합 체육회 만들 것”

민선 제3대 광주시체육회장 취임

전갑수 민선 제3대 광주시체육회장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광주 염주종합체육단지 내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전갑수 신임 체육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각 종목단체 회장, 체육지도자, 스포츠클럽, 육성학교 선수 대표 등 체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체육회를 잘 이끌어준 김광야 회장직무대행과 이평형 사무처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소통·화합·통합하는 체육회를 만들어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시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체육인에게 자긍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5가지 중점 사항을 추진해 광주체육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전 신임 회장은 종목단체와 구체육회 구성원들을 모두 아우르고 현재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선수 연계 육성과 실업팀 확대 등으로 체육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 종목단체 지원 확대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비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도 전념할 예정이다.

전 신임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시민 생활체육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체고 선수단 방문 격려 등으로 취임일을 열었다.

전 신임 회장은 지난 50여 년간 배구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행정가의 길을 걸어온 경기인 출신 체육인이다. 광주시배구협회장,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2년 사업보고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했다. **최동환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신임회장이 16일 광주 염주종합체육단지 내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기정 광주시장, 체육 관계자 등과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최동환 기자**

## ‘선두’ 광주도시공사 女 핸드볼, 우승 가도 ‘비상’

원선필·서아루 부상 시즌 아웃  
김금순 등 대체자원 순환 투입  
19일 부산서 서울시청과 2R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선두’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의 우승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주축 선수인 원선필(피봇)과 서아루(레프트윙)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돼 전략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광주도시공사는 개막 후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과 최근 7연승을 질주하며 16일 현재 9승 1무, 승점 19점으로 1위에 위치해 있다. 2위 부산시설공단(7승2무1패·승점 16)과 승점 3점 차다. 3위 삼척시청(승점 15), 4위 SK슈가글라이더즈(승점 13)와는 각각 4점, 6점 차다.

정규리그 11경기가 남아 있는 광주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한 경기 승패에 따라 순위표가 요동칠 상황에서 주축선수 2명

의 부상 이탈이 달갑지만은 않다.

특히 원선필의 이탈은 치명적이다. 원선필은 이번 시즌 10경기에 모두 출전해 26골 11도움 12블록슛 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중앙 수비 라인을 든든히 지키면서 공격에서도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며 팀 공격수들에게 슛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SK슈글즈와의 경기 도중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쳐 오는 22일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서아루도 앞선 지난 10일 대구시청전에서 전반 초반 수비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오는 20일 수술할 예정이다. 서아루는 이번 시즌 29골 6도움 4스틸 6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오세일 감독은 원선필의 공백을 김금순과 김지혜, 박세림 등을 순환 투입하며 메울 계획이다. 서아루 자리에는 이슬기(레프트백)와 송혜수(센터백)로 대체할 생

각이다.

이들 대체 선수들이 팀 내 비중이 큰 원선필과 서아루의 공백을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광주도시공사의 우승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첫 시험대는 오는 19일 부산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5위 서울시청과의 2라운드 경기다.

이날 경기를 승리한다면 연승과 무패 행진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추격 팀들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지만 패한다면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오세일 감독은 “시즌 도중 2명이 부상으로 이탈해 선수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겠다. 선수들도 부상 악재로 내심 실망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서울시청전이 중요하다. 이기면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가겠지만 졌을 땐 다운될 것이 우려된다. 철저히 준비해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광주FC, 수비수 김동국·골키퍼 김태준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수비수 김동국과 골키퍼 김태준을 영입하며 수비 라인을 보강했다.

광주FC는 16일 지난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측면수비수 김동국과 대학 기대주로 주목받는 골키퍼 김태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동국은 강원 흥천FC U-18 출신으로 2021 고등 축구리그 강원 권역 우수선수상 수상과 함께 각종 전국 대회에서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22시즌을 앞두고 제주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R리그 10경기에 나서며 기량을 선보였다.

원발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플레이가

강점인 김동국은 이정호 감독이 중요시하는 전술 이해도가 뛰어나고 측면 공격, 측면 수비, 센터백까지 소화 가능하다. 그는 2019년 27회 백록기 고교축구대회에서 대륜고의 우승을 견인했으며, 골키퍼상을 수상했다. 또 17회, 20회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2년 10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파리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돼 테스트를 받은 바 있다. **최동환 기자**

청주대 출신의 김태준은 185cm·80kg의 체격조건으로 1:1 방어와 위치 선정, 경기 리딩 능력이 뛰어난 골키퍼다. 특히 안정적인 킥력과 빌드업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그는 2019년 27회 백록기 고교축구대회에서 대륜고의 우승을 견인했으며, 골키퍼상을 수상했다. 또 17회, 20회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2년 10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파리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돼 테스트를 받은 바 있다. **최동환 기자**